

宿命的 별들

(The Stars my Destination)

알프레드·베스터 (Alfred Bester) 作

徐 光 云 訳

(韓國SF作家클럽會長)

파괴된채 잔해가 되어버려 화성과 목성의 중간을 표류하고 있는 우주선 <노매드류>의 선실에 한 사나이가 살아남아있었다. 그의 이름은 갈리버·호일. 별로 신통치 않은 사내로써 직업은 3등기관사이다.

비좁고 어두운 관속같은 공간에서 그는 까무라치지도 않은채 홀로 살고 있었다. 환각에 사로잡혀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1주일에 한번 기밀실을 빠져나와 파괴된 선실까지 산소탱크를 가지러가는 일을 되풀이하며 살아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반년에 걸친 생존 투쟁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 그의 방향으로 돌진해오는 우주선이 보이는데 아닌가! 그 우주선 역시 노매드호와 마찬가지로 플레스타인이 소유하는 <보가호>였다.

그런데 그가 발신한 신호탄을 눈앞에 보면서도 어찌된 셈인지 보가호는 잠깐동안 노매드호와 나란히 선 다음 태연히 스쳐가며 그대로 사라지고마는 것이 아닌가.

구출될 가망이 없는 드넓은 우주공간에 팽개쳐져자 가슴을 육박지르는 분노가 그를 덮쳤다. 호일은 맹세한다.

“보가. 나는 기어이 여기서 탈출하겠다. 너를 찾아내서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꼭 죽이고야 말겠다. 나는 너를 능지처참하겠다.”

복수의 집념에 사로잡힌 그는 탈출하려고 범

인이면 할 수없는 일을 감행했다. 노매드류를 살살이 뒤져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모아 우주선을 목성쪽으로 발진시켰다.

우주선은 25세기 마지막의 야만민족이 사는 소행성 살갓소에 표착한다. 그들은 2세기전에 조난당한 조사대의 후손으로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과학적방법을 기피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세계와 문화를 이룩하고 스스로 과학인임을 자처했다.

포일은 그들에게 붙잡혀 얼굴전체에 호랑이와 같은 문신을 시술받고 아내를 떠맡기었다. 그러나 보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포일은 수세기전의 우주선을 탈취하여 지구로 향한다.

포일이 보가의 행방을 찾고있는 것처럼 노매드류의 행방을 알고있는 포일을 뒤쫓고있는 한 무리의 인간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재벌의 지배자 플레스타인 内行星연합군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外衛星동맹의 첩자들이다.

왜냐하면 노매드류에는 2천만 크레디트의白金과 더우기 전쟁의 귀추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물질 <파이어>가 적재되고 있기 때문.

포일은 철없이 그들의 그물속으로 뛰어들거나 마참가지였다. 그는 신조우주선의 진수식에 출석한 플레스타인의 눈앞에서 보가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려는 순간 붙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플레스타인의 참모격인 다겐햄은 은갓수단을 써서 포일로 하여금 노매드류의 행방을 자백하도록 강요했으나 허사였다. 포일로서는 보가에 대한 복수의 집념에 사로잡혀 댄 일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드디어 참다못한 다겐햄은白金의 존재를 알려주고 1할을 줄테니 거래하자고 흥정을 붙였다. 이 순간으로부터 노매드류의白金 2천만은 보가와 싸우기 위한 군사금으로서 각광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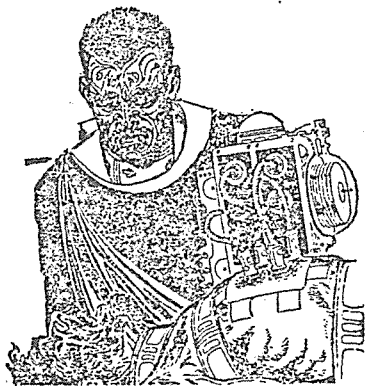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한 까닭에 포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굴병원 구플·마르테르에 보내진다. 그곳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암흑세계이며 환자들은 뜻없는 규칙적인 생활을 보내야만 했다.

거기서 포일은 지즈베라라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설득하여 보가가 아니라 보가의 지휘자를 추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폭력 이외의 수단을 알지못했던 포일은 또한가지의 새로운 수준을 배웠다.

그는 지즈베라와 함께 구플·마르테르를 탈출한다. 그러나 이 탈출극은 다젠햄에 의해서 꾸며진 연극이었다. 그럼에도 포일은 지즈베라와 그녀의 동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마침내는 소행성 살갓소의 노매드몽에서 보물을 탈취하여 단신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장려(瘴癘=축축하고 더운 곳에서 생기는 독기로 인하여 나는 병)가 행성군을 휩쓸고 낡은 해는 저물어갔다. 전쟁은 가속도가 붙은양 습격이나 우주공간에서의 소전투와 같은 먼 사건으로부터 가까운 생산시설의 대파괴로 번져갔다.

태양계전쟁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 뻔했다. 이러한 어수선한 사회를 배경으로 白金을 거머쥔 포일은 행성셀레스의 갑부 조폴리·포마



일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타난다.

그는 교양있는 미너비서 로빈의 도움으로 사교계에 발을 딛고 플레스타인에게 접근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스템街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가의 전승무원을 찾았다.

그런데 그에게 진상을 토로하려고 한 사내들은 차례차례 죽어갔다. 보가의 비밀을 누설하려는 사람은 즉석에서 죽도록 그들의 몸안에 모종의 장치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노매드몽의 구난신호를 무시하고 승무원의 모든 입을 봉해가면서까지 숨겨야 할 보가의 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또한 보가의 지휘자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포일을 뒤쫓는 자들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포일과 벵락부자 포마일이 동일인물임을 알아차린다. 포일은 플레스타인의 딸 올리비아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력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죽어야만 했던 여자 그리고 그후부터 모든 인간을 증오하면서 보복하려고 평생을 살아온 여자가 바로 올리비아였다. 포일이 사랑하는 여자이기도 한 그녀가 또한 보가의 지휘자였다.

外衛星동맹의 포로가 됐던 포일은 거기서 조운트하여 노매드몽로 돌아왔다. 그리고선 <파이아>가 사람의 思惟에 의하여 폭발하는-태양계조차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내장한 우주의 원초물질과 같은 성질의 舍金임을 알게 된 포일은 그것을 지구전체에 뿌리고 말았다. 지구의 운명을 일부의 권력자가 아니라 민중의 손에 넘겨주기 위하여.

작가와 작품

알프레드·베스터(Alfred Bester, 1913~)의 작품은 많지가 않다. 1953년의 <분해된 사나이>, 56년의 본편 그리고 신작<The Computer Connection>(74년)등 장편 4편외에 단편집 2권이 있을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높다. 지금에 와서는 일종의 권위를 차지하게 된 後고賞이지만 맨처음에는 그의 처녀장편<분해된

사나이>에 영예를 주기 위해서 창설되거나 마찬가지였다.

베스터는 본편에서 조운트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창안해냈는데 조운트효과는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딴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신의 잠재에너지를 끌어냄으로서 이가 가능하다는 것. 베스터의 技法은 늘 신비주의적이다.